“불국사, 고려 · 초선 초 양식 복원”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 경계展’에서 가치 재조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반에 신라 건축문화의 정수로 불리고 있는 경주 불국사의 복원 40주년을 맞아 불국사 복원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한양대박물관(관장 이희수)은 2월 23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의 경계(境界 · 警戒)전’을 개최한다.

일반에는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김대성(700~774)이 지은 통일신라시대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건축과는 모습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었다. 광화문과 숭례문의 복원 당시에도 복원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불국사는 임진왜란 때 전각 대부분이 소실됐다. 현재의 불국사는 40년 전인 1970~1973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복원한 것.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자금과 기술력이 집약됐지만 공사가 진행될 당시 신라시대 사찰 양식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복원은 고려와 조선시대 건축양식을 토대로 진행됐다.

전시전에서는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의 경북 순시 당시 정부 주도로 진행되게 된 부분부터 시작해 불국사 복원공사의 과정이 상세히 공개됐다.

40년 전 복원공사 기록인 일간 및 월간 공사일지를 비롯해 복원 청사진, 정부 공문서 등 자료와 당시 공사 사진들이 전시됐다. 또 박정희 · 육영수 대통령 부부의 시찰 장면 등도 공개됐다. 이는 당시 공사 현장감독이었던 유문용 씨가 한양대 측에 일괄 기증한 것들이다.

전시장에는 복원사업을 진행한 김정기 · 김동현 前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이 진행한 구술간담회 내용이 실려 있다.

1970년대 불국사 수리복원 총책임자였던 김정기 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증언은 불국사가 다른 양식으로 지어졌음을 뒷받침한다.

김 前 소장은 “당시 신라 목조건축의 실상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때문에 복원팀은 남아 있던 석단 · 석교 등을 제외하고 고려 중기~조선 초기까지의 양식을 혼합해 불국사를 재건했다. 다시 말하면 불국사에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의 모든 양식을 모으게 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40년전, 신라사찰 건축 고증 부족
“복원은 원형 충실해도 현대 창조물
잘못된 양식은 차기 복원 과제”
문헌자료 입체영상화…현재의 8배

1910년대 불국사 모습(왼쪽 상)과 1973년 복원공사 모습(왼쪽 하)과 현재 모습(오른쪽)

그렇다면 불국사는 신라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관련 전문가들은 양식이 당시 현대식으로 일부 진행된 바는 있지만 신라 건축문화임은 맞다고 입을 모은다.

배원정 한양대박물관 수석학예연구사는 “복원이 아무리 고증을 통해 원형에 충실해도 결국 현대의 창조물 일 수밖에 없다”며 “일부 잘못된 양식은 차기 복원의 과제”라고 말했다.

고건축의 실체가 확실히 규명될 때까지 복원을 미루고 그대로 보전하는 유럽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상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제라는 것.

그렇다면 불국사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 문헌자료에 의하면 원래의 불국사는 그 규모가 현재의 8배인 2000여 칸에 달했다고 한다.

박물관 측은 국내 복원전문가와 협력하여 고서의 기록을 토대로 불국사의 웅장한 모습을 삼차원(3D) 입체영상으로 복원 제작, 55인치 대형화면을 통해 관람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문화재 복원을 위한 여러 개념을 소개하면서 복원대상의 선정, 복원의 기준과 방법론을 생각해보는 코너도 마련했다.

문화재가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옛 공법, 옛 공구로 고증을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되살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차이다. 전통 건축 복원의 숨은 논란을 관객 앞에 끌어낸 이번 전시는 국내 고건축사와 대중을 소통시키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냈다. (02)2220-1394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tip. 문화재 복원 관련 개념

문화재 보존(Conservation)은 문화유산이 지닌 문화적 중요성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복원(Restoration)은 후대에 덧대어 진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재료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구성요소를 재조립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재보다 이른 시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보전(Preservation)은 퇴락의 속도를 늦추고 현 상태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리 과정을 의미한다.

문화재청, 불교문화재 11건 보물 지정

전등사, 청련사, 용문사, 봉선사 불상 괘불 등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11건의 불교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785호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江華 傳燈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은 17세기 전반에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지에서 활동하던 수연(守衍) 스님이 수화승(首畵僧, 우두머리 조각승)으로 참여해 1623년에 조성한 불상이다.

보물 제1786호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江華 傳燈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은 지장보살상과 그 좌우에 무독귀왕, 도명존자, 시왕(十王)과 귀왕, 판관, 사자상, 동자상, 인왕상 등 명부전의 권속 총 31구의 상을 포함한다.

보물 제1787호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江華 靑蓮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은 예전부터 청련사의 주불로 예경(禮敬)되었던 것으로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1232년에서 127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물 제1788호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출토유물 일괄(南楊州 水鍾寺 八角五層石塔 出土遺物 一括)’은 시기를 달리하여 왕실에서 발원 납입(納入)한 것으로 조선시대 초기와 후기의 왕실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로 발원문과 명문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물 제1789호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安城 靑龍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은 임진왜란 이후 대형 소조불상이 유행하기 시작하던 시기의 작품이다.

보물 제1790호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楊平 龍門寺 金銅觀音菩薩坐像)’은 고려후기, 14세기에 크게 유행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했던 금동보살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상이다.

보물 제1791호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驪州 神勒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조성자와 조성 시기(1610년)가 분명하다. 인일(仁日)이라는 새로운 조각승의 이름이 확인된다.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종좌상

보물 제1792호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南楊州 奉先寺 毘盧遮那三身掛佛圖)’는 비로사나삼신불(毘盧舍那三身佛)과 권속을 그린 괘불도이다.

보물 제1793호 ‘가평 현등사 동종(加平 懸燈寺 銅鍾)’은 아담한 크기로 종신(鍾身)을 여러 개의 구획선으로 나누고 그 안에 연잎무늬, 당초무늬, 파도무늬 등을 화려하게 새겨 넣어 장식을 강조한 범종이다.

보물 제1794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9[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九]’는 당나라의 반자밀제(般剌密帝)가 번역하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해설한 것을 세종 31년(1449)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번역하여 세조 7년(1461)에 완성한 것이다.

보물 제1795호 ‘안성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불좌상 복장전적(安城 淸源寺 乾漆阿彌陀如來佛坐像 腹藏典籍)’은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2, 40, 41(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12, 40, 41)〉 3첩과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6(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6)〉 1첩이다.

노덕현 기자

율리 영축사지서 통일신라 금당지 발견

울산박물관, 쌍탑일금당식 가람 배치 확인

‘율리 영축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당지가 발견됐다.

울산박물관(관장 김우림)은 1월 13일 울주군 영축사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동탑에서 서쪽으로 43m 떨어진 곳에서 서탑 기단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쌍탑 양식은 통일신라시대 지어 진 사찰들의 공통점이다.

울산박물관 측은 “쌍탑의 중심축에서 북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평면 방형 16.4×16.4m)의 금당지가 확인돼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쌍탑일금당(雙塔一金堂)식 가람 배치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울산박물관은 지난 10월15일부터 영축사의 사역과 규모, 가람 배치 등 통일신라시대 울산 불교문화의 기초 연구 자료와 무너진 석탑의 복원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동탑과 서탑은 탑의 영역을 표시하는 지대석인 탑구(塔區)가 확인돼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과 천군리 삼층석탑의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 지방 사찰 중에서도 사격(寺格)이 높은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금당지 남쪽에서 석등 1기가 확인됐으며, 8세기 비석편 1점과 금동불상 2점, 석탑 상륜부 복발편과 보륜편 1점을 비롯해 이곳이 영축사지임을 나타내는 ‘靈鷲’(영축)명 기와 등 다량의 기와가 확인됐다.

김우림 관장은 “금당지, 석탑, 석등, 중문지 등의 가람배치 확인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울산지역 불교문화 연구에 중요한 학술연구 자료로 판단하며 통일신라시대 울산 불교문화의 위상이 뛰어났음을 증명한다”라고 말했다.

울산박물관은 앞으로 탑지 하부 조사 및 사역 범위 확인 등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해 영축사지의 전모를 밝힐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천태불교 논문 공모

원각사상硏, 2월 20일까지

천태종 종학연구기관인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이 2월 20일까지 천태불교학술대회 논문을 공모한다.

논문 주제는 불교학, 불교사 등, 불교와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로 응모자격은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대학 전임강사 이상은 응모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천태종 홈페이지 천태학자료실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선정된 논문은 2013년 5월 말로 예정된 천태불교학술대회에서 발표되며 천태학연구 제16집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02)3460-5226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제4회 원효학술상 공모

2월 28일까지 접수…3개 주제 중 택일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4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동 · 서양 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중 1개다.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한다.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전임강사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야 하며, 심사 대상작품은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것에 한한다. 저서는 ISBN 등록본 이어야 한다. 접수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수상작은 전임강사 이상 교수 부문 저술상 1000만원, 논문상 700만원, 박사과정 후 비전임교수 논문상(저서 포함) 500만원, 석 · 박사과정 학생 금상 300만원, 은상 250만원, 동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는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4월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5월 중 개최된다.

한편, 원효학술상은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2009년 제정됐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일반 마이크 V-620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